

# 배우 강예원, 콘텐츠 기획자 이규창과 열애



**이태원서 데이트...태국 동반 여행도**

싸이 해의진출 도운 실력파 프로듀서  
올 여름 지인들 모임서 만나 급속 발전

**본지  
단독**

배우 강예원(33)과 싸이의 해의 진출을 도운 콘텐츠 기획자 이규창(35) 프로듀서가 진지하게 교제 중인 것으로 알려져지면서 관심이 쏠린다. 영화계에서 입지를 다져온 여배우와 한류를 세계에 알리는 실력파 기획자의 만남으로서 더욱 화제다. 강예원과 이규창 프로듀서는 올여름께 지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친화력이 강한 성격인데다 영화 등 공통의 관심사가 맞아 급격히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얼마 전에는 강예원이 이규창 프로듀서



이규창

가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을 찾아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또 최근엔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동반 태국 여행을 다녀오며 사랑을 키우고 있다. 강예원은 이달 3일 개막한 제18회 부산 국제영화제 레드카펫 등 관련 행사를 소화한 뒤 서울로 올라와 연인과 함께 곧장 태국으로 향해 달콤한 휴가를 즐겼다. 실제로 강예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태국에서 찍은 4장의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과 힐링 휴가를 다녀왔다"고 썼다.

강예원과 이규창 프로듀서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교제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리고 있다. 자신들만의 데이트 사진을 올리는 커뮤니티를 따로 만들어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지만 주위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최근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24일 "서로 대화가 통해 호감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사람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이 잘 맞았고 각자 하는 일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예원은 영화 '해운대' '헬로우 고스트' '퀵' 등의 주연으로 활약하며 유쾌한 매력으로 사랑받아 온 배우다. 내년 초 영화 '조선미녀삼총사'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규창 프로듀서는 가수 싸이의 해의 진출을 이끈 기획자로 유명하다.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소니픽처스를 거쳐 현재 키노33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맡고 국내 스타들의 해의 진출을 돕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이해리 기자 god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 솔직 발칙한 '육정 발라더' 예능 대세 급부상

유희열·성시경·존박 등 거침없는 '19금'  
감성적 노래와 상반된 모습 인간미 물씬



유희열

성시경

발라드 가수들의 '도발'이 화제다. 감미로운 멜로디와 목소리로 여성 팬들의 귀를 간질이던 유희열, 성시경, 존박 등이 각종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기상천외(?)한 캐릭터로 거듭나고 있다. 이쯤하여 '육정 발라더'. 이른바 '19금' 유머와 야한 농담을 능수능란하게 풀어내는 이들의 모습에선 여성혐오도 없다. 유희열은 KBS 2TV 음악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음악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

를 나누다가도 성적 코드의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부터 변한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도 '감성 변태'. 그는 작은 눈을 그윽하게 뜨며 "19금 개그는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연마한

기술"이라며 웃는다. 또 케이블채널 엠넷 '방송의 적'에서는 하이힐의 냄새를 맡으며 회열을 느끼거나, 채찍을 휘두르는 등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최근 고정 멤버로 발탁된 케이블채널 tvN 'SNL코리아'에서도 '대놓고' 19금 유머를 구사하고 있다. 그는 한편으로 MBC '무한도전'과 11월 방송예정인 SBS 오디션프로그램 '케이팝스타3'의 심사위원으로도 합류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성시경도 데뷔 초부터 얻은 '발라드 왕자'라는 이미지를 훌훌 벗어버렸다.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을 통해 조금씩 반듯한 모습의 모습을 깨기 시작하더니, 현재 방송

중인 JTBC '마녀사냥'을 통해서도 숨겨둔 '육정 발라더'의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존박도 마찬가지다. '예능 대세'로 떠오르게 된 것도 '방송의 적'에서 보여준 바보 캐릭터와 진한 성적 농담을 자연스럽게 펼쳐낸 덕분이다. 여자스타를 음탕하게 쳐다보는 눈빛으로 '19금' 개그를 뻔뻔하게 구사하며 사랑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태규 대중음악평론가는 "노래만 해야 한다고 인식됐은 무대 위에서 이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가수를 입장에서 새로운 모습과 이미지로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어 좋고, 대중 역시 스타들이 드러내는 뜻밖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교감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 시청자는 식상한 오디션프로 방송사는 즐기치게 쏟아낸다

예전·창업·작곡 분야 잇따라 방송 예정

케이블채널 엠넷 '슈퍼스타K 5'가 전 시즌만 못한 성적으로 서바이벌 오디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낮은 관심이 시청률과 투표 참여 집계로 증명되는 상황이지만 소재만 바꾼 프로그램들이 잇따르고 있다.

'슈퍼스타K 5'를 비롯해 현재 방송 중인 오디션 프로그램은 엠넷 '후즈 넥스트: 윈(WHO IS NEXT: WIN)', 온스타일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4', 올'리브 '한식대첩', tvN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등 5편이다. '슈퍼스타K 5'는 전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5%대 시청률을 기록 중이고, 나머지는 1%대 이하로 시청자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전, 창업, 작곡 등을 앞세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출격을 앞두고 있지만 기대감은 높지 않다.

KBS는 26일 두 편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란히 선보인다. 2TV는 모델전이 될 개를 뽑는 '슈퍼독'을, 1TV는 창업 오디션 '황금의 펜타곤'을 방송한다. '황금의 펜타곤'은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와 성격이 유사하다.

11월에는 유희열을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발탁한 SBS 'K팝스타 시즌3'과 재능 있는 작곡가를 발굴하는 작곡 서바이벌 엠넷 '슈퍼히트'가 방송될 예정이다. 내년 3월 스토리온 '아트 스타 코리아'는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한 방송사 예능국 관계자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대부분 '꿈의 실현'과 그 속에서 파생되는 인생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시청자의 참여와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명의 스타를 주축으로 한 프로그램보다 제작비도 절감할 수 있고 다양한 소재를 펼칠 수도 있어 매력적인 아이টে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오디션 프로그램에 매달리는 방송사들과 달리 시청자는 이미 오디션 프로그램의 패턴을 모두 파악했다. 최근 5년 사이 지상파와 케이블채널 할 것 없이 가수, 연기자 등 미래의 스타를 선발하는 포맷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피로도만 높아졌다. 소재만 다를 뿐 '서바이벌'의 고정적 포맷과 구성 등이 식상함을 더하면서 더 이상 시청자에게 '꿈의 무대'로서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ricky337



배우 주진모 하지원 백진희 지창욱(왼쪽부터)이 24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MBC 특별 기획 드라마 '기황후' 제작발표회에서 작품의 성공을 기원하며 포즈를 취했다. 권현진 기자

## 새신랑 박진영, 신부 얼굴 볼 틈도 없다

'K팝스타3' '우리동네 예체능' 등 출연  
미쓰에이 새음남 작업에 콘서트까지

"신혼은 잊었다."

10일 9세 연하와 결혼한 '새신랑' 박진영이 신혼도 잊은 채 연말까지 강행군을 벌인다.

13일 남대평양으로 5박6일간의 신혼여행을 떠났던 박진영은 21일부터 SBS 'K팝스타3' 녹화에 임하고 있다. 30일부터는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농구편'에 출연한다. '우리동네 예체능-농구편'이 12월까지 녹화가 예정돼 있어 박진영은 'K팝스타3'와 출연을 병행해야 한다. 또 11월 초 발표할 미쓰에이



새 음반의 프로듀싱에도 참여하고 있다. 내년 선보일 신인그룹 런칭 준비에도 한창이다. 콘서트도 펼친다. 12월19~22일 서울 한남동 올림픽공원 SK 올림피아드볼링장에서 열리는 콘서트 '나쁜파티 더 하프타임 쇼'(사진)이다. 콘서트를 위한 춤 연습과 '우

리동네 예체능-농구편'에서 농구 게임으로 체력 소모도 큰 상황. 박진영은 경기도 구리 신혼집에 다양한 운동기구들을 마련해 놓고 웨이트트레이닝으로 체력을 기르고 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방송 출연과 공연 준비 외에도 내년에 선보일 신인 그룹의 프로듀싱까지 맡으면서 하루도 쉴 날이 없을 정도"라며 "가수와 프로듀서 등 활동 영역이 넓은 탓이다"고 말했다.

김원겸 기자 gymmy@donga.com 트위터@ziodadi



### 연예뉴스 스테이션

**가수 거미 씨제스와 계약...그룹 JYJ와 한술밥**

가수 거미가 그룹 JYJ와 한술밥을 먹게 됐다. JYJ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는 24일 "거미와 함께 향후 활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기획사를 모색하던 거미는 여러 기획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왔지만, 씨제스로 거취를 결정했다. 씨제스는 설경구 이정재에 이어 최근 최민식을 영입하며 화제를 모았으며, 이들 외에 강태정 송지호 박유환 등이 소속돼 있다.

**가수 김장훈·사업가 김태욱 독도 홍보 의기투합**



가수 김장훈(사진 오른쪽)과 가수 출신 사업가 김태욱(왼쪽)이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데 의기투합했다. 김장훈은 미국 뉴욕에서 독도를 홍보하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독도 아트

쇼 인 뉴욕'을 계획 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한국에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김태욱이 대표인 국내 SNS마켓 '굿바이셀리'에 프로젝트 페이지를 개설했다. '독도 아트 쇼 인 뉴욕'은 11월18일부터 일주일간 뉴욕의 중심가인 소호에 있는 갤러리 131그린 스트리트에서 열린다. 굿바이셀리 홈페이지(www.goodbuyselly.com)에서 김장훈의 '노블레스 돈블리자' 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이준기, 드라마 '투웍스' 인기 업고 아시아 투어 진행**



배우 이준기(사진)가 12월14일 서울을 시작으로 일본 나고야(1월 27일), 오사카(1월28일), 요코하마(1월30일)를 거쳐 중국까지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 중국은 베이징(2014년 1월4일), 상하이(1월 11일), 광저우(2월15일)까지 투어 일정을 확정했다. 이준기는 드라마 '투웍스'의 인기로 힘입어 아시아 투어를 결정했다. 이준기는 이번 아시아투어 제목을 '이준기 아시아 투어-JG 나이트'라 정하고, 콘서트 형식의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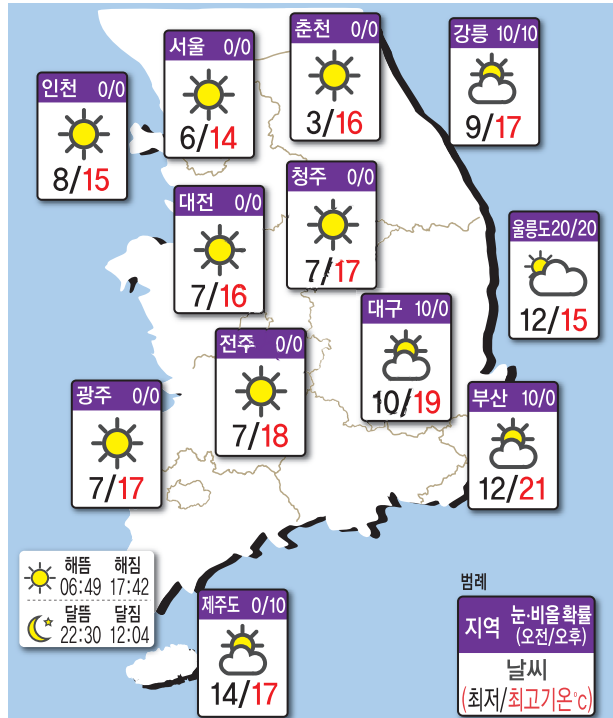
**'무한도전-자유로 가요제' 음원 내달 2일 첫 공개**

MBC '무한도전'의 '2013 자유로 가요제' 참가곡 음원이 11월2일부터 KT뮤직에 공개된다. 당초 10월26일 '자유로 가요제' 본 무대 방송과 음원 공개를 계획했지만, 공연 준비 과정의 방송분량이 많아져 1주일 연기하게 됐다. '자유로 가요제'는 17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약 3만5000명이 모인 가운데 '무한도전' 멤버들과 뮤지션이 7팀으로 짝을 이뤄 저마다 개성 있는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무한도전' 측은 이번 음원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편집 | 박재운 기자 parkjy@donga.com 트위터@parkjyoon

### 오늘의 날씨

10월 25일 금요일 (음력 9월 21일)



주간 날씨 (내일/오늘)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26(토) 6/15 2/15 6/16 7/17 7/19 14/18  
27(일) 7/17 3/16 9/17 7/18 7/20 13/18

| 스포츠동아 |     |         |              |
|-------|-----|---------|--------------|
| 발행인   | 송대근 | 대표전화    | 02 2020 0114 |
| 인쇄인   | 최영호 | 편집부     | 02 2020 1039 |
| 편집인   | 이성준 | 스포츠1부   | 02 2020 1052 |
| 편집국장  | 양성동 | 스포츠2부   | 02 2020 1051 |
| 광고국장  | 이승욱 | 엔터테인먼트부 | 02 2020 1061 |
|       |     | 레저경제부   | 02 2020 1062 |
|       |     | 사진부     | 02 2020 1068 |
|       |     | 시정국     | 02 2020 1038 |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주)110-71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